

지역 매아리

정읍시, 벼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

정읍시가 농민들이 가뭄태풍 등 자연 재해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영농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3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6월 2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단, 가뭄으로 인한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대상 지역에서 판매 품목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으로 보험료의 84(국·도·시비)가 지원돼 농가에서는 16%만 부담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농도 미세먼지 당부

고창군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한 7가지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7가지 행동요령은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외출 시 식약처 인종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미세먼지가 심한 장소에 오래 있지 않기 △외출 후 손과 발 깨끗이 씻기 △물이나 야채, 과일 등 충분히 섭취하기 △환기 및 물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 관리하기 △자외선 차단제 및 화장품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동 하지 않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천에 옮겨 건강한 삶을 영위할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 예방교육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23일 해양오염 예방교육을 고창군 소재 서남해 해상풍력개발 교육장에서 시공사 작업자, 선장, 기관장 등 해양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남해 해상풍력 공사에 동원된 예인선, 부선 등 공사작업선에 의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해상 기름 유출 시 대응조치 ▲선박 발생 폐유,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사 작업 시 해양오염을 줄이고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고창 복분자 선연 8년 연속 · 황토배기 멜론 2년 연속 영예



'고창 복분자 선연'과 '고창 황토배기 멜론'이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에서 복분자, 멜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 복분자 선연'과 '고창 황토배기 멜론'이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에서 복분자, 멜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가 후원하는 상이며 고창 복분자 선연은 8년 연속,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24일 서울 잠정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국내 언론을 대표하는 종합지, 경제지, 방송국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권위 있는 브랜드 시상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한 인터넷 소비자조사와 전문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복분자, 멜론 부문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창 복분자 선연과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미세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조차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농가들의 땀방울이 보태져 생산된다.

고창군은 전국 제1의 복분자 생산지로 2004년 복분자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4200여 농가에서 매년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30%가량인 2,000여톤을 생산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생산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복분자 대표군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고창 복분자 선연은 당도, 유효성분, 향 등이 타 지역보다 뛰어난 것이 특징이며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노화방지, 육체피로 회복, 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고창군은 다품목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토양과 병해충 관리, 공동선별을 통한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멜론 생산을 위해 정기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1:1 현장 컨설팅,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펴

왔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 등 그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홍콩에 수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고 품질 멜론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농특산품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어 어디에 내놓아도 그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명칭에 걸맞은 명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휴게소 건립 서명부 한국도로공사 전달

## 부안군, 6300여명 서명...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 노출 실정

부안군이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건립을 위해 군민 6300여 명의 서명한 서명부를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1년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고창과 군산에는 휴게소를 건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부안군에는 당시 주산면 덕림리 일원에 휴게소 부지만 조성하고 교통량 부족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게소 건립을 연기해 현재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부안군은 현재 시대적인 변화 및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매년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휴게소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안휴게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고속도로 인접 휴게소와 간격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긴 구간(67km)으로 피로노출 및 졸음운전 등 운전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 부안군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전 세계 168개국 5만여 명의 참여와 관광객 등 총 9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휴게소 건립을 통해 교통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잼버리 성공 개최에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 1월부터 부안휴게소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해 현재 6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부안군 건설교통과 임택명 과장은 부안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 본부 휴게시설 처 김현주 휴게시설계획팀장에게 전달했다.

김현주 팀장은 "부안군민의 부안휴게소 건립에 대한 숙원은 서명부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대상지 선정 용역 중에 있으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5일 3시 · 5시 연지아트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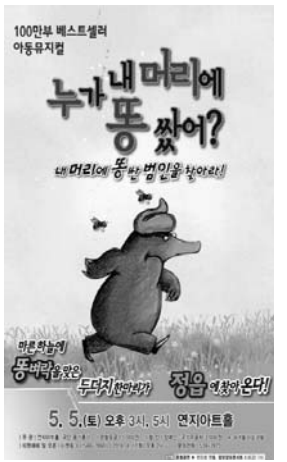
기발한 상상력의 어린이 뮤지컬이 정읍을 찾아온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독일의 아동문학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스테디셀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가 뮤지컬로 정읍에서 공연된다. 어린이날인 내달 5일 오후 3시와 5시 연지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땅굴을 막 나왔다가 머리에 똥을 뒤집어 쓴 두더지의 똥주인 찾기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원작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십만부가 팔린 작품이다.

극단 '용기종기' 배우들이 출연하고 관람료는 5,000원이다.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00원이고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관람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대단히 기발하다.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어느 날 땅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똥 세례를 받는다. 두더지는 이 똥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집요하게 똥 산 동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비둘기와 말, 토끼, 염소, 소, 돼지 등의 동물들을 만난다. 동물들마다 다른 똥 모양과 똥 놀 때의 말들이 '뿌지직', '쿠당탕', '철퍼덕' 등의 의성어를 통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코믹하고 유쾌



하게 보여준다. 과연 두더지는 똥 산 법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동물들에 따라 똥의 종류와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은 물론 배변 훈련기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배변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작품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1588-7800)에서 가능(4월 17일 오픈)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539-787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시내 동선단축 공약제시



장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 시가지의 교통정체 해소와 이동거리 동선단축을 위한 4개축을 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학수 예비후보가 마련한 정읍 시내 도로개설 계획은 구 시가지의 교통정체 현상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정 원형의 동선 구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건축공학 전문가인 장 예비후보는 정읍시가 지금까지 정읍역~내장상동까지 1차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성장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장상동에 집중되면서 구 부자용으로 구 시가지의 교통정체가 악화되는 등 악

영향을 끼쳤다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 예비후보의 동선단축을 위한 정읍시내 도로개설 계획은 4군데로 △장명동 영창아파트 앞 국도1호선 광주방향 진·출입로 개설 △수성동 부영아파트~장명동 말고개 연결도로 △중항경기장과 유창아파트(초산동) 연결도로 △원산평 마을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 등이다.

장학수 예비후보는 "계획된 도로 개설로 구 시가지의 교통정체현상 해소와 이동거리 동선이 단축되면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장명동 영창아파트 앞~국도1호선 광주방향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수성동·장명동 주민들의 국도1호선 광주방향 진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도1호선이 장명동과 내장상동의 연결도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여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람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